



8.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휘 ㉠ 기·픈 남·곤 ㉡ 브르·매 아·니·뵐·씨  
 꽃:도·코여·름·하느·니  
 :식·미기·픈 ㉢ ·므·른·ᄃᄃ·래아·니그·출·씨  
 ㉣ :내·히이·러바·르·래·가느·니  
 - 「용비어천가」 제2장 -

- ① ㉠: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있다.
- ② ㉡: 현재 쓰이지 않는 모음이 있었다.
- ③ ㉢: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
- ④ ㉣: 주격 조사 '히'가 사용되었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 사뿐히 즈려뺏고 가지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9.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의법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종결 어미를 반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10. ㉠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향에 대한 그리움
- ② 무기력한 삶에 대한 후회
- ③ 임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 ④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의 비애

11. 윗글과 <보기>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시가 문학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 경기 민요 「아리랑」 -

- ① 3음보 율격을 지닌다.
- ②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인다.
- ③ 절기에 따른 풍속을 노래한다.
- ④ 마지막 구절 첫머리에 감탄사를 쓴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십 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 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 맛져 두고  
 ㉠ 강산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순 -

12.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속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
- ② 멀리 있는 임금을 걱정하고 있다.
- ③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다.
- ④ 후학 양성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13. ㉠~㉣ 중 윗글의 ㉠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 피를 바라보니  
 그리던 ㉢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 말쑥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 윤선도, 「만흥」 -

- ① ㉠
- ② ㉡
- ③ ㉢
- ④ ㉣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김병국 부친 되십니다.”  
 중위가 나를 소개했다. 그리고 덧붙여, 내가 예편된 대위 출신으로 육이오 전쟁에 참전한 상이용사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영구라 합니다. 앉으시지요.”  
 윤 소령이 나를 회의용 책상으로 안내해 간이 철제 의자를 권했다. ㉠ 그는 호인다운 인상에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여, 중위의, 파견 대장은 인간적이란 말에 한결 신뢰감을 주었다.  
 “불비한 자식을 뒤서 죄, 죄송합니다. 자식 놈과 얘기해 보셨다면 아, 알겠지만 천성이 착한 놈입니다.”  
 의자에 앉으며 내가 말했다.  
 “어젯밤 마침 제가 부대에서 숙식할 일이 있어 장시간 ㉡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눠 봤지요. 똑똑한 젊은이더군요.”  
 “요즘 제 판에는 뭐 조류와 환경 오염 실태를 여, 연구 한답시고……. 모르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시, 심려를 끼치지 않았나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제분은 군 통제 구역 출입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텐데도 무모한 행동을 했어요. 설령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사전에 부대 양해나 협조부터 요청해야지요.”  
 (중략)  
 윤 소령은 당번병을 불러 김병국 군을 데려오라고 말했다.  
 한참 뒤, 사병과 함께 병국이 파견 대장실로 들어왔다.  
 [A] 땀국 앓은 피죄죄한 그의 물결이 중병 환자 같았다. 점퍼와 검정 바지도 펄투성이여서 하수도 공사를 하다 나온 듯했다.  
 병국은 움푹 꺼진 동태눈으로 나를 보았다.  
 “㉢ 이 녀석아, 넌 도대체 어, 어떻게 돼먹은 놈이냐! 통금 시간에 허가증 없이 해안 일대에 모, 못 다니는 줄 뻔히 알면서.”  
 내가 노기를 띠고 아들에게 소리쳤다.  
 “본의는 아니었어요. 사흘 사이 동진강 하구 삼각주에서 갑자기 새들이 집단으로 죽기에 그 이유를 좀 알아보려던 게…….”  
 병국이 머리를 떨구었다.  
 “그래도 변명은!”  
 “고정하십시오. 자제분 의도나 진심은 충분히 파악했으니깐요.”  
 윤 소령이 말했다.

병국은 간밤에 쓴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고, 각서 한 장을 썼다. 내가 그 각서에 연대 보증을 섬으로써 우리 부자가 파견대 정문을 나서기는 정오가 가까울 무렵이었다. 부대에서 나올 때 집으로 찾아왔던 중위가 병국이 사물을 인계했다. 닭털 침낭과 등산 배낭, 이인용 천막, 그리고 걸레 조각처럼 늘어진 바다 오리와 꼬마물떼새 시신이 각 열 구씩이었다.

“죽은 새는 뭘 하게?”

웅포리 쪽으로 걸으며 내가 물었다.

“해부를 해서 사인을 캐 보려고요.”

“폐, 폐수 탓일까?”

“글쎄요…….”

“㉠너도 시장할 테니 아바이집으로 가서 저, 점심 요기나 하자.”

나는 웅포리 정 마담을 만나 이삿돈을 받아 오라던 아내 말을 떠올렸다. 병국이는 식사 따위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 아무래도 새를 독살하는 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니?”

“갑자기 떼죽음당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전에도 새나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물 탓이야. 이제 동진강은 강물이 아니고 도, 독물이야. 조만간 이곳에서 새떼가 자취를 감추고 말 게야.”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14. 윗글을 읽고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병국’의 일에 무관심하다.
- ② ‘병국’은 ‘윤 소령’의 입장을 동정한다.
- ③ ‘나’는 ‘윤 소령’의 행동에 실망감을 느낀다.
- ④ ‘병국’은 새들의 떼죽음에 의혹을 품고 있다.

15.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회상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②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이국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갈등의 심화를 보여 주고 있다.

16. ㉠~㉢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명나라 때 홍무와 부인 양씨는 뒤늦게 계월을 낳아, 남자 옷을 입혀 기른다. 난을 피하다가 부모와 헤어진 계월을 여공이 구해 평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아들 보국과 함께 광 도사에게 수학하게 한다. 평국은 보국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고,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출전하여 공을 세운다. 그 후 평국은 병이 들어 어의에게 진맥을 받고 난 뒤 여자임이 밝혀진다.

계월이 천자에게 ㉠ 상소를 올리자 임금께서 보셨는데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림학사 겸 대원수 좌승상 청주후 평국은 머리를 조아려 백 번 절하고 아뢰옵나이다. 신첩이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장사랑의 난에 부모를 잃었사옵습니다. 그리고 도적 맹길의 환을 만나 물속의 외로운 녀이 될 뻔한 것을 여공의 덕으로 살아났사옵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했으니, 곧 여자의 행실을 해서는 규중에서 늙어 부모의 해골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옷을 입어 황상을 속이우고 조정에 들었사오니 신첩의 죄는

만 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에 감히 아뢰어 죄를 기다리옵고 내려 주셨던 유지(諭旨)<sup>1)</sup>와 인수(印綬)<sup>2)</sup>를 올리옵나이다. 임금을 속인 죄를 물어 신첩을 속히 처참하옵소서.’

천자에게서 글을 보시고 용상(龍床)을 치며 말씀하셨다.

“평국을 누가 여자로 보았으리오? 고금에 없는 일이로다. 천하가 비록 넓으나 문무(文武)를 다 갖추어 갈충보국(竭忠報國)<sup>3)</sup>하고, 충성과 효도를 다하며 조정 밖으로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될 만한 재주를 가진 이는 남자 중에도 없을 것이로다. 평국이 비록 여자지만 그 벼슬을 어찌 거두겠는가?”

[중간 줄거리] 천자의 종매로 계월과 보국은 혼인을 하게 된다. 혼인 후 계월은 규중에서 지내다가 오랑캐를 진압하라는 천자의 명을 받는다.

평국이 엎드려 아뢰었다.

“신첩이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공후의 작록을 받아 영화로이 지낸 것도 황공했사온데 폐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첩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을 만분의 일이나 갚으려 하오니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천자에게서 이에 크게 기뻐하시고 즉시 수많은 군사와 말을 징발해 주셨다. 그리고 벼슬을 높여 평국을 대원수로 삼으시니 원수가 사은숙배(謝恩肅拜)하고 위의를 갖추어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傳令)을 내렸다.

“적병의 형세가 급하니 중군장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마라.”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에게 말했다. “계월이 또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에 있사옵니까?”

여공이 말했다.

“전날 내가 너에게 무엇이냐 일렀더냐? 계월이를 괘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어찌 계월이가 그르다고 하겠느냐? 나랏일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니 어쩔 수 없구나.”

- 작자 미상, 『홍계월전』 -

1) 유지(諭旨):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던 글

2) 인수(印綬): 벼슬에 임명될 때 임금에게 받는 도장을 몸에 차기 위한 끈

3) 갈충보국(竭忠報國):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를 갚음.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말을 통해 대상을 평가하고 있다.
- ② 다른 사물에 빗대어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③ 계절의 변화를 통해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인물의 과거를 보여 주고 있다.

18.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천자는 ‘여공’을 중군장으로 삼고자 한다.
- ② ‘평국’은 천자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③ ‘보국’은 대원수인 ‘계월’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 ④ ‘여공’은 ‘계월’이 아닌 ‘보국’의 편을 들어 주고 있다.

19. ㉠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혼인을 부탁하고 있다.
- ② 천자를 속인 죄에 대해 벌을 청하고 있다.
- ③ 벼슬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 ④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탄의 마을 치몽은 한눈에 봐도 가난한 마을이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답게 변변한 세간도 없다. 그러나 매 순간 몸과 마음을 다해 손님을 접대한다. 활쏘기를 구경하려고 걸음을 멈추면 집으로 뛰어 들어가 돛자리를 꺼내 온다. 논두렁 길을 걷다 보면 어린 소년이 뛰어와 옷 속에 품은 달걀을 수줍게 내민다. 이 동네 사람들은 행복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으며 빈한한 살림마저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듯했다.

또한 치몽에서는 늘 몸을 움직여야만 한다.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도, 공동 수도기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도 움직여야만 한다. 빨래는 당연히 손으로 해야 하고, 쌀도 키로 끌어야 하며, 곡물은 맷돌을 돌려 갈아야 한다. 난방이 되지 않아 실내에서는 옷을 두껍게 입어야만 하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몸을 써야만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이상하게도 살아 있음을 실감케 한다. 일상의 모든 자질구레한 일에 몸을 써야만 하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부탄 정부가 2005년에 노골적으로 물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그 질문에 단지 3.3퍼센트만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몸이 편한 것과 행복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 이 나라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사는 것이다. 텔레비전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카메라로 찍는 삶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삶이다. 그러다 보니 부탄에서 일과 놀이는 ㉡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노는 듯 일하고 일하듯 논다. 진정한 호모 루덴스<sup>1)</sup>다. 이런 그들에게 놀이는 돈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아직 노동하기 위해 살지는 않는다.

- 김남희, 『왜 당신의 시간을 즐기지 않나요』 -

1)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노는 인간’ 또는 ‘유희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역사학자 하위징아(Huizinga, J.)가 제창한 개념

2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 ㄴ. 비슷한 상황을 열거하고 있다.
  - ㄷ.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ㄹ.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1. ㉠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불편해도 살아 있음을 느끼는 삶
- ② 대중 매체를 통해 놀이를 즐기는 삶
- ③ 몸을 움직여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삶
- ④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나누며 사는 삶

22.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적      ② 일시적      ③ 유기적      ④ 수동적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면이 국수나 우동과 다른 점은 면을 한 번 튀겨서 익혔다는 것이다. 그래서 끓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 끓여서 먹더라도 금방 익혀 먹을 수 있다. 심지어 컵라면은 지속적으로 끓일 필요도 없고 단지 끓는 물을 붓기만 해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왜 하필 3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새삼 깨닫는다.

컵라면의 면발은 봉지 라면에 비해 더 가늘거나 납작하다. 면발의 표면적을 넓혀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컵라면의 면을 꺼내 보면 ㉠ 위쪽은 면이 팍 짜여 뽁뽁하지만, 아래쪽은 면이 성글게 엉켜 있다. 이는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따뜻한 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 때문이다. 컵라면 용기에 물을 부으면 위쪽 보다는 아래쪽이 덜 식는다. 따라서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면이 아래쪽부터 뽁뽁하게 들어차 있으면 물의 대류 현상에 방해가 된다. 위아래의 밀집도가 다른 컵라면의 면발 형태는 뜨거운 물의 대류 현상을 원활하게 하여 물을 계속 끓이지 않아도 면이 고르게 익도록 하는 과학의 산물이다.

컵라면 면발에는 화학적 비밀도 있다. 봉지 라면과 비교했을 때 컵라면 면발에는 밀가루 그 자체보다 정제된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라면은 밀가루로 만든 면을 기름에 튀겨 전분을 알파화<sup>1)</sup>한 것이다. 하지만 밀가루에는 전분 외에 단백질을 포함한 다른 성분도 들어 있다. 면에 이런 성분을 빼고 순수한 전분의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알파화가 많이 일어나므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복원되는 시간도 빨라진다. 전분을 많이 넣을수록 면이 붙어내는 시간이 빨라져 더 빨리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면발이 익는 시간이 빨라지는 만큼 붙어 터지는 속도도 빨라져 컵라면을 다 먹기도 전에 곤죽이 되고 만다.

- 이은희, 『라면의 과학』 -

1) 알파화: 물과 열을 가해 전분을 익혀 먹기 쉽게 만드는 과정이나 상태

23. 윗글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학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해야지.
- ② 대상과 관련된 경험을 제시해야지.
- ③ 다른 대상과 대조하여 설명해야지.
- ④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해야지.

2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컵라면의 면발은 단백질과 전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 ② 국수나 우동의 면발은 모두 한 번 튀겨서 익힌 것이다.
- ③ 면발이 납작해지면 뜨거운 물에 닿는 표면적이 넓어진다.
- ④ 면에 전분 외에 다른 성분의 비율을 높이면 알파화가 많이 일어난다.

2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류 현상을 방해하기 위해서
- ② 전분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 ③ 컵라면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 ④ 면이 고르게 익도록 하기 위해서